

IPTV 쟁탈전...통신3사 '3차 전쟁' 불 붙었다



KT 관계자가 상품설명회에서 IPTV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유선사업서 유일하게 매출 증가 차세대 성장동력...콘텐츠 확보 사활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무선 사업분야에서 수익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인터넷과 연결된 IPTV 분야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IPTV는 이미 구축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토대로 눈부시게 발전, 통신사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IPTV는 인터넷 망을 통해 양방향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자가 방송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자 상거래도 가능하다.

◇유일한 유선 서비스 수익=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와 LG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기업의 작년 유선사업 매출은 11조 9150억원으로 2011년 12조 1680억원 대비 대비 2.1% 감소했다.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락 가운데 유선 서비스 중 유일하게 IPTV만 1조 4080억원으로 3570억원이 증가해 무려 35%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나타났다.

2006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하나TV'를 시작으로 3개 이동통신사가 모두 IPTV 사업에 뛰어들면서 IPTV 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는 2006년 1만6000여명에서 2011년 428만여명으로 연평균 185% 증가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또 2013년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지상파 방송 송출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셋톱박스 설치로 간단하게 디지털 TV를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IPTV 시장은 한동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확보에 사활=이용자들이 IPTV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원하는 시간에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서'라는 개인적인 필요와 '결합 상품의 비용절감'이란 경제성으로 나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IPTV 가입자는 'TV 다시보기', '실시간 방송', '영화' 등 상위 3개 콘텐츠의 이용률이 80% 가량을 차지

하면서 콘텐츠가 IPTV의 이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U+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구글TV를 결합시킨 IPTV 'U+TV G'를 출시했다. IPTV의 기능에 인터넷 검색, 유튜브 감상 등 구글TV의 최신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구글TV 자체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벌써 10만여 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집하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KT의 경우,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결합해 내놓은 '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자사 IPTV 브랜드인 '올레TV'의 의 단계적 대역폭 확대를 통해 화질 개선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을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도 최근 그동안 IPTV 서비스를 운영해온 자회사 브로드밴드미디어와 합병을 발표하면서 가정용 상품과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IPTV를 비롯한 가정용 유선 서비스는 IP를 기반으로 결합이 가능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에 IPTV에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를 더한 스마트 셋톱박스의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용관 원장(왼쪽)과 맑음영화사 최정락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화 '설해'의 후반작업은 광주 CGI 센터에서 진행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맑음영화사

영화제작·문화콘텐츠 교류 업무협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맑음영화사(대표 최정락)와 영화제작 및 문화콘텐츠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맑음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영화 '설해(감독 김정관)'의 후반작업을 광주CGI센터에서 진행

하게 되며, 지난 7일부터 디지털 색보정 작업에 들어갔다.

최정락 대표는 "지난 1월 광주시가 주최한 '기업유치투자설명회 토크어'에서 CGI센터를 둘러본 결과 시설과 장비면에서 매우 흡족했다"며 영화의 후반작업지로 광주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박정렬기자 halo@

스마트폰 100배 즐기기

할수록 빠져드는 카툰게임

요즘 게임 시장에서 가장 '핫(HOT)'한 분야는 모바일 소셜게임이다. 세계적으로 1억 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의 '게임하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임들은 특히나 인기다. 가입 친구끼리 경쟁을 유도하는 순위 방식과 간단하고 쉬운 직관적 조작이 인기의 원동력이다.

국민게임 반열에 오른 '애니팡'과 '드래곤 플라이트'를 비롯해 최근 다운로드 순위 1위를 다투는 '원더러너'와 '다함께 차차차'는 속도감을 강조한 게임 구성으로 주목받는다. 이렇듯 각 각 달리기와 차운전을 하며 진행 방향에 놓인 돈과 아이템 등을 얻기 위해 화면을 터치해야 한다.

'할'도 인기다. 기계를 기울이며 이동하는 적을 맞추는 게임 방식 때문에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자신만의 가계를 만들어 가는 '아이러브 커피' 음악 게임인 '도전! 가요왕' 등 70여 가지의 대체로는 카카오톡 게임들. 카카오톡 연동으로 인한 '초대하기' 메시지에 불편함은 있지만 한동안 인기 있는 게임들 전망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한국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34개 OECD國중 3년 연속 1위

인구 100명당 102명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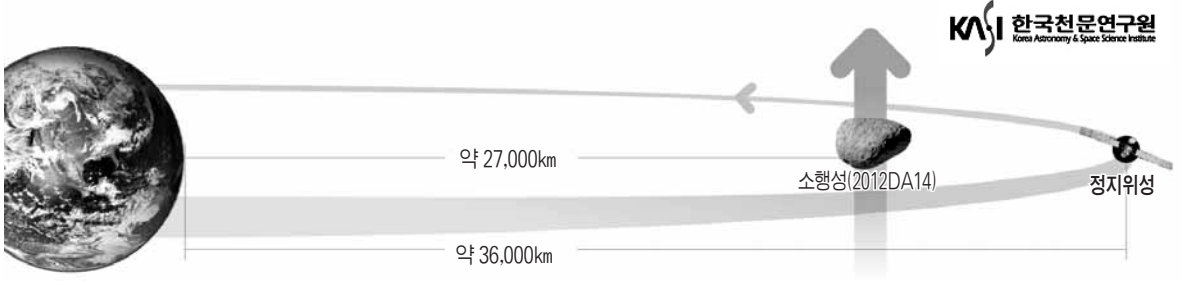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작년 6월 기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가 무선인터넷 보급률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됐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유무선 인터넷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가 104.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

다. 이어 스웨덴이 101.8명, 호주가 97.4명으로 각각 2,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유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도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수가 36.2명으로 스위스(41.6명), 네덜란드(39.4명), 덴마크(38.3명)에 이어 4위에 올랐다. OECD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ICT)의 흐름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씩 OECD 브로드밴드 포털을 통해 국가별 유무선 인터넷보급률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농구장 2배 소행성, 16일 새벽 지구 근접 통과

총알 10배 빠른 속도로 지표면 2만 7700km 까지 접근

농구장의 두 배 정도 크기인 지름 45m의 소행성이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력으로 16일 지구를 스쳐 지나간다.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가깝게 지구에 다가오지만, 충돌 가능성은 낮다.

한국천문연구원(원장 박வ호)은 13일 "16일 새벽 4시24분, 근지구소행성 '2012 DA14'이 지표면에서 2만 7700km 까지 접근해 총알보다 약 10배 빠른 7.8km/초의 속도로 통과한

다"고 발표했다. 10분 뒤인 4시34분께, 이 소행성은 우리나라의 3만여 km 상공을 지나간다. 이 거리는 나로과학위성(고도 약 1500km)과 천리안위성(고도 약 3만5786km) 사이인 중계도위성(2000km~3만5786km)의 고도에 해당한다.

"2012 DA14" 크기의 천체가 이번처럼 지구와 가깝게 통과하는 일은 인류가 소행성을 체계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

이다. 그러나 이 소행성이 지구를 통과할 때 지구를 바탄한 궤도 위치에 파해를 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원 측은 "질량이 작아 지구 자전변화나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낮고, 정지궤도 위성이 움직이는 동서방향의 직각인 지구의 남북 방향으로 소행성이 통과하기 때문에 위성 파해도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건설당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남구 백운동 준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160㎡ 건평330㎡ 감정가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 ▷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펜션시설 대지850㎡ 건평1146㎡ 감정가11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광산구 소촌동 2층단독주택 대지158㎡ 건평177㎡ 감정가9천만 최저가6천만
- ▷ 광산구 지평동 1층상가주택 대지208㎡ 건평76㎡ 감정가2천6백만 최저가1천8백만

공장및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공단내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8억
- ▷ 광산구 도천동 하남공단내 2층공장 토지1504㎡ 건물996㎡ 감정가15억3천만 최저가12억2천만
- ▷ 장성군 동화면 2층공장 토지1983㎡ 건물2320㎡ 감정가7억 최저가3억9천만
- ▷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17억3천만 최저가18억8천만

토지매매

- ▷ 장성군 삼서면 관리지역 전,야 36996㎡ 감정가75억3천만 최저가3억7천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7천만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월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남로5가 대지 265㎡(80) 건평990㎡(300) 감정17억 선 매도10억6천
- 양양시설 적합 화순군 도곡읍내 대지 5660㎡(1712) 건평4523㎡(1681)매출10억 법인이전가능 18억
- 광주역앞 5층 건물 대지330㎡(100)건평1224㎡(370) 전세6천 월480 매출5억3천 매도7억천
- 월산파출소 부근 신축건물 대지 437㎡(132)건평 646㎡(195) 감정은 11억선 매출4억5천 매도 7억2천
- 대안동 소방서 4거리 대지 649㎡(210) 건평 158평 공시지가 11억7천 매도12억
- 서방시장 4거리 대지 1182㎡(356) 건평 2850㎡(867) 병합·양양시설 적합 공시가 28억4천 매도 19억
- 중흥 동 모형을 원형으로 사용중 대지 301㎡(91) 건평 1124㎡(340평)매출4억5천 보증금 5천 월730만원 매도7천만원

건물매도

- 전월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910㎡(275) 2층주택 174㎡(52) 매출5천 매도 1억4500
- 광주역앞 대지 357㎡(108)건평 1294㎡(397) 원형65 투룸17 매출3억 보증금 8천에 월400선 매도 7억
- 북구 우산동 대지 330㎡(100)건평 1366㎡(412) 매출 6억 보증금 8천에 월 900선 매도 10억
- 봉황면 천천리 땅 2546㎡(770)주택 102㎡(31) 전원 생활적합 아파트나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나대지

- 발강읍장대 순창군 화문산 땅 1310㎡(396)1억5천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1300㎡(400) 가든등 다용도 사용 교환가능 2억8천
- 화정역 인근 대지 1105㎡(334)오피스텔 생활주택 적합 매출1억 매도 17억3천
- 바남하루스 나주시 봉황면 담 4684㎡(1417)시설 600평 매출1억3천 매도2억2천
- 북동 상업지 992㎡(300)원룸 등 적합 7억8천
- 보성군 월여면 대지·전·담·야 747540㎡(226131) 대규모 농장 등 적합 태양광 부지등 적합 18억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 건물구합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합〉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매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중요히 소리로소로 앞이 물건 처분에 드립니다.
-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를 찾고 계신가요?
전국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땅이 있으신가요?
은행 대출에서 건축 분양까지 상담해드립니다.
- 골짜길 18층, 골짜길 9층, (상당환영)
- 전국 랜드마크 빌딩 다양 확보!
- 10억! 50억! 100억! 200억 물건 다양 보유 및 구함
- 고액 비밀 보장
-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은분은 전회접수 후 사무실 내방하시면 귀한시간 내주시민들의 보답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맞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한번의 인연으로 평생 고객에게 신뢰를 남기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매 물 ■

1. 서구 상무지구 메인도로 최고 상권 초대형빌딩,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건물로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상가.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2. 서구 상무지구 내 훌륭한 사무나. 대지 524평
3. 서구 상무지구 중심상업에 있는 건물로서 월세 수익률이 높은 빌딩. 대지 151평, 건평 939평.
4. 서구 상무지구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증금 호텔. 대지 850평, 건평 2,620평.
5. 서구 광천동 최고 요지 빌딩 (광고효과, 투자까지 최고)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6. 북구 초대형 사무나 대지 1,932평 건평 2,710평.
7. 서구 지평동 상가 밀집된 중심상업지역 최고 요지. 대지 300평, 평당 1700만원.
8. 송정역 부근 상업지역 내 저렴한 땅 1,150평. (투자유망)

☎ 956-6660 / 010-2139-6255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 지(매매)

- 용 도 •
전월주택, 과수원 연수원, 절, 한옥마을 등
- 면 적 •
16,789평방미터(약5,078평)
- 위 치 •
백암산 남쪽(장성호위)
- 대표지번 •
장성군 북하면 상용리7-14번지에17필지
- 매각금액 •
52억5천만 원

■ 설 명 ■
위 토지는 장성 백암산(남쪽) 아래로 5,078평 전부가 사용가능한 토지로서 최정호 우택호의 지령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땅으로 본토지에서 남쪽으로 장성군이 내려다보이며 본토지의 좌우로 개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5, 6년 전 이미 토지의 토목작업이 다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소 잡초가 우거진 상태입니다.

1. 본토지는 한옥마을로 적합하며
2. 또한 전원 농장을 겸한 가족모지
3. 오일원이 전혀 없는 과수원
4. 조용한 절기도원
5. 회사의 연수원등으로 적합합니다.
6.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나 1톤트럭은 마음대로 가능함

본토지는 당 중개업소에서 전속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필요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 010-3609-5221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